



보도자료

사진(붙임)있음
 사진(붙임)없음

배포일시	2020. 2. 13.(목)	작성자	고객홍보실 김예림 주임 (051-640-7003)	hongbo@humetro.busan.kr
담당부서	영업처	책임자	영업계획부 이상곤 부장 (051-640-7271)	
		담당자	영업계획팀 하소영 대리 (051-640-7259)	
보도일시	이 자료는 배부 즉시 보도하실 수 있습니다.			총 7매

“불금’ 퇴근시간대 승객 가장 많이 타”... 지난해 3억 4천만 명 신고 달린 부산도시철도

- 부산도시철도 2019년 수송실적 분석... 일평균 93만8천명으로 역대 최다
- 최다인원 수송요일은 금요일, 승객 가장 많이 탄 날은 5월 3일
- 1호선 승객 가장 많아... 이용객 최다역사 '서면역' 부동의 1위
- 무임승차인원 전체 이용객 중 30% 육박... 처음으로 1억 명 넘어

언제, 어느 역에서 승객들은 도시철도를 가장 많이 탈까?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궁금증이다.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13일 2019년 수송실적을 통해 주요 성과와 각종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3억 4,255만 명이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을 이용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송인원 기록에 해당한다.

공사는 2019년 수송성과와 함께 월별·요일별·시간대별 및 최다·최소이용 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역대 최다 수송인원 달성, 4년 연속 일평균 90만 명 돌파

지난해 부산도시철도는 일평균 수송인원 93만8천 명(1년 기준 3억 4,255만 명)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18년(92만1천 명 / 3억 3,624만 명)에 비해 매일 1만7천 여 명이 도시철도를 더 이용한 셈이며, 비율로는 1.9%가 증가한 것이다.

▷ 또한 부산도시철도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일일 평균 수송승객 90만 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연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일평균	93만8천	92만1천	92만8천	90만4천
수송실적	3억4,255만	3억3,624만	3억3,885만	3억3,099만

▲ 연도별 수송실적 [2016년 이후] (단위 : 명)

공사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수송인원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월 사흘에 걸쳐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25일~27일)의 경우,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해 도시철도로 이용객이 대거 몰리며 평소보다 수송인원이 17% 이상 증가했다.*

* 정상회의 행사장 인근(센텀시티~장산) 정상회의 기간 총 수송인원 (3일간)
: 2019년 27만1천 명 / 전년 동기(23만1천 명) 대비 4만 명 증가

2 월별 / 요일별 / 시간대별

▲ 월별 분석 결과, 부산도시철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은 5월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3,045만 명이다. 이는 같은 해 월 평균(약 2,855만 명)보다 약 6% 많은 수치다.

* 월별 수송인원 추이 : 5월 > 12월 > 11월 > 10월 > 3월 > 4월 > 7월 > 6월 > 1월 > 8월 > 9월 > 2월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적	2,778만	2,473만	2,970만	2,922만	3,045만	2,779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836만	2,764만	2,663만	2,989만	3,002만	3,031만

▲ 2019년 기준 월별 수송실적 (단위 : 명)

공사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나들이객이 많은 5월에 연중 승객이 가장 몰린다”고 설명했다. 2019년 5월 기록은 직전 해 같은 달(2,984만 명)과 비교해도 2% 가량 높아진 수치를 보인다. 12월 역시 연말 행사로 승객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수송인원이 가장 적은 2월은 설 명절과 방학으로 인한 승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요일별로 보면**, 이용객이 가장 많은 때는 **금요일**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105만4천 명이 이날 도시철도를 이용한다. 그 뒤를 매일 100만 4천 명이 이용하는 **화요일**이 잇고 있다. 반면 가장 승객이 적게 타는 요일은 **일요일**이다. 하루에 64만8천 명으로, 금요일 수송인원의 61.4% 수준이다.

* 요일별 수송인원 추이 : 금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월요일 > 목요일 > 토요일 >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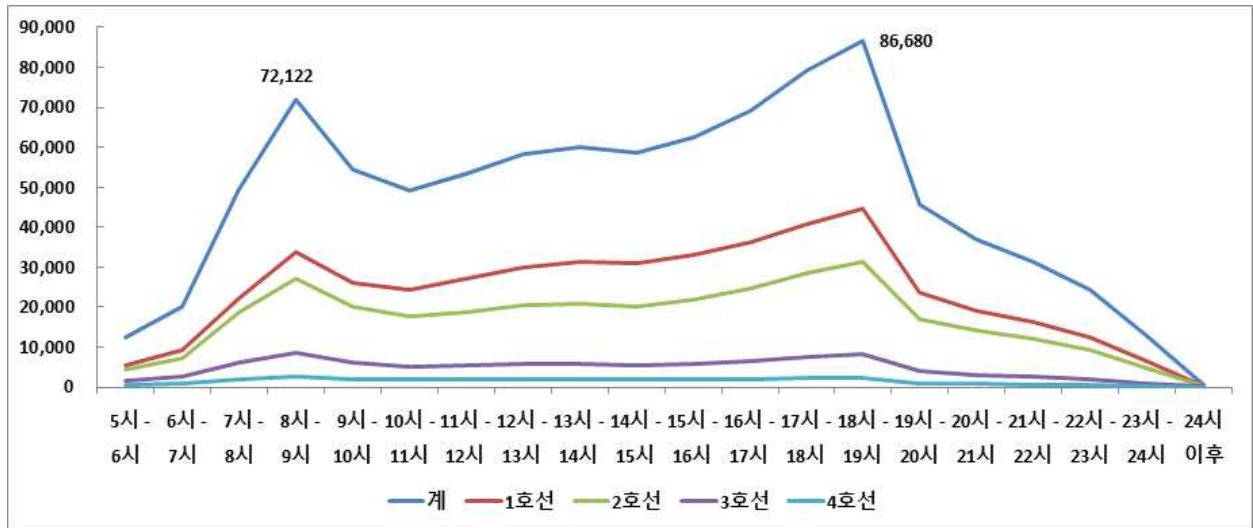
요일	평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적	938	992	1,004	997	990	1,054	882	648

▲ 2019년 기준 요일별 수송실적 (단위 : 천명)

▶ 2019년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날은 **5월 3일 금요일**이다. 이날 하루만 115만 명이상이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했다. 공사는 어린이날을 앞둔 데다 금요일이라는 특성상 많은 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승객이 가장 적었던 날은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32만 명을 기록한 **9월 22일 일요일**이었다.

▶ 지난해 일일 승객이 100만 명을 초과한 날은 총 **186일**이다. 이는 직전 해의 152일을 30일 이상 뛰어넘은 기록이다. ▶ 일일 승객이 110만 명을 초과한 날도 **21일**로 전년 대비 11일 많아졌다.

▲ **시간대별로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에 따르면 도시철도 전체 이용객의 27.1%(18~20시 14.1% / 7~9시 13.0%)가 출·퇴근시간에 집중돼 있다. 반면 승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는 **첫차와 막차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기준 요일별 수송실적 (단위 : 명)

3 호선별 / 역별

▲ 승객이 가장 많았던 호선은, 총 1억 7,327만 명이 이용하며 전체 수송객의 50.6%를 책임진 **1호선**이었다.* 전년(1억 6,978만 명)과 비교해도 2%가 늘었다. 반면 가장 적은 승객이 이용한 호선은 1,098만 명이 탑승한 **4호선**이었다.

* 호선별 수송인원 추이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수송실적	1억7,327만	1억2,386만	3,444만	1,098만
비율	50.6%	36.2%	10.0%	3.2%

▲ 2019년 기준 호선별 수송실적 (인원단위 : 명)

▷ 호선별 수송실적은 1~4호선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호선은 전년 대비 2.06%가 오른 **3호선**(2018년 3,374만)이었으며, 그 뒤를 1호선(2.05%)과 2호선(1.73%), 4호선(0.89%)이 이었다.

▲ 승객이 가장 많은 역사는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서면역**이다.* 하루에만 평균 6만 8,479명이 서면역을 이용했다. 한 해로는 2,500만 명에 육박한다. 서면역은 부산도시철도 이용객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어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의 일평균 이용객이 3만 1,975명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승객이 가장 적은 역은 4호선 **석대역**으로, 하루 평균 169명의 승객이 이곳을 찾았다.

▷ 서면역과 연산역 외에도 **사상역**(2만 3,862명/이하 일평균), **부산역**(2만 3,136명), **남포역**(2만 2,240명) 순으로 승객이 많았다.* 이들 역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이용객 상위 역사에 오르며 부산도시철도 ‘전통 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 수송인원 상위 10개 역사

: 서면역(1+2) > 연산역(1+3) > 사상역(2) > 부산역(1) > 남포역(1) > 하단역(1) > 동래역(1+4) > 센텀시티역(2) > 자갈치역(1) > 경성대부경대역(2)

상위역	2019 (일평균)	전년대비 승객증감	하위역	2019 (일평균)	전년대비 승객증감
서면	68,479	▲1.8%	석대(4)	169	▲8.2%
연산	31,975	▲2.2%	고촌(4)	742	-
사상	23,862	▽0.2%	체육공원(3)	1,035	▲4.2%
부산	23,136	▲2.7%	호포(2)	1,172	▲2.3%
남포	22,240	▽0.4%	낙민(4)	1,743	▽2.6%

▲ 2019년 기준 수송실적 상·하위 5개 역사 (인원단위 : 명)

▲ 승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역은, 환승역인 서면역을 제외하면 1호선 **교대역**(1만 5458명/이하 일평균)이다. 교대역은 동해선을 이용한 후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인원이 늘어나 하루 평균 1천 명이 증가했다. 뒤이어 1호선 **하단역**(▲919명), **범일역**(▲869명), **시청역**(▲743명)이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했다.

▲ 승객 증가세가 도드라진 역도 있다. 직전 해보다 13.4% 증가한 실적을 보인 2호선 **중산역**이 주인공. 이곳은 양산 신도시 신규 입주인원이 증가하면서 2019년 하루 평균 4,72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2018년(4,165명)과 비교하면 560명 이상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3호선 **물만골역**(11.04%)과 1호선 **좌천역**(10.26%), **신장림역**(9.3%),

장림역(9.1%)이 이름을 올렸다.

4 무임수송 30% 육박... 국비지원 절실

작년 한 해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은 **2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기준 전체 93만8천 명 중 28만 명이며, 한 해로는 1억 224만 명에 이른다. 무임승차 인원이 1억 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은 증가 추세다.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1,396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해 공사 재정적자 2,279억 원의 6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연도	2019	2018	2017	2016	2015
인원	1억224만	9,567만	9,342만	8,756만	8,520만
수송비율	29.8%	28.5%	27.6%	26.5%	26.3%

▲ 최근 5년간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 및 비율 (인원단위 : 명)

고령화 진행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사는 동종기관 중 무임수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 기관장이 무임비용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 등이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절대안전체계 강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 주요 행사에 대비한 특별수송계획 등 잠재 승객을 유인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부산도시철도의 1년치 통계를 보면 도시철도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상도 읽어낼 수 있다”며 “올 한 해도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며 부산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